

고흥 귀농·귀촌 10명중 7명 “고향·연고로 선택”

호남통계청-고흥군, 실태조사

최근 3년간 1504명 도시서 이주
초기 정착 애로 “생계·생활환경”

고흥군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귀농·귀촌인 10명 중 7명은 고향이 고향이었거나 지인이 있는 등 연고가 있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전남지역에서도 귀농귀촌행복학교 운영과 귀향청년 정착지원금 지원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으로 인정받아왔지만, 실상 귀농귀촌 행복학교의 도움을 받은 귀농·귀촌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호남통계청과 고흥군이 발표한 ‘2023년 고흥군 귀농귀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도시지역에서 고흥군으로 귀농·귀촌한 가구는 1206가구로, 만 19세

이상 귀농·귀촌인은 15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귀촌은 799가구(971명), 귀농은 407가구(53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귀농·귀촌 가구의 전입 전후 생활환경 변화 전반에 대한 파악을 위해 최초로 고흥군과 호남지방통계청이 협업해 진행된 실태조사다.

고흥군의 귀촌 가구 및 가구원은 지난 2020년 447가구(560명), 2021년 365가구(443명), 2022년 394가구(501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 크게 늘어난 경향은 있지만, 꾸준히 높은 유지율을 보여왔다. 연령대별로는 60~69세가 36.4%로 가장 많았으며 50~59세(24.9%), 70세 이상(19.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입자 중 고흥군 출신이 58.7%로 타지역 출신 40.4%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고흥을 선택한 이유 역시 ‘고향이어서’가 귀촌인과 귀농인 각각

43.8%, 54.2%로 모두 가장 높았다. 또 ‘친지, 친구, 자녀 등 지인이 살고 있어서’라는 비율도 20.2%를 차지하며 10명 중 7명은 고흥군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환경이 좋아서’가 18.8%를 차지했다.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비율은 38.5%, 약간 만족 29.5%, 매우 만족 9.0% 등으로 과반 이상이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12.5%는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연환경·경관’이 6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만족하는 이유는 ‘생활편의 시설 부족’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귀농·귀촌인 중 92.3%는 고흥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주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7.7%의 경우 ‘주택·택지·토지 구입문제’(21.8%), ‘생활시설 문제’(15.5%), ‘경제적인 문제’(14.9%)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이 정착단계에서 겪은 어려움은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생계유지(22.8%)’, ‘생활환경 문제(22.1%)’, ‘귀농·귀촌 관련 상담기회 부족(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귀촌인의 경우 ‘생활환경 문제(26.9%)’가, 귀농인의 경우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생계유지(19.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전입 전 고흥귀농귀촌행복학교에서 도움을 받은 귀농·귀촌인은 5.9%에 불과해 관련 홍보와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흥군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 귀촌인은 ‘주택 구입·임대자금 지원(30.1%)’, ‘농지·주택·일자리 정보제공(19.6%)’ 등을 꼽았으며 귀농인은 ‘영농자금 지원

(26.0%)’, ‘주택구입·임대자금 지원(22.6%)’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또 향후 확대가 필요한 공공서비스로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32.0%)’,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19.7%)’, ‘임신·출산·양육지원 서비스(13.9%)’ 등이 꼽혔다.

고흥군 귀농·귀촌인 중 전입 이후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경험한 경우는 8.8%로 주요 갈등 요인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가 42.9%로 가장 높았고, ‘집·땅 문제’ 등의 재산권 침해(24.1%), ‘농촌과 도시적 생활방식 차이(18.8%)’ 등이 제시됐다.

이에 지역민이 개선해야 할 인식으로는 ‘개인 생활 방식 존중’이 3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제거(34.5%)’, ‘마을 일 운영방식 정보 부족에 대한 소통(12.4%)’ 등이 꼽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LH, 광주동남권 주거지원종합센터 착공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14일 광주 남구에서 현장 밀착형 주거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광주동남권 주거지원종합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하는 ‘광주동남권 주거지원 종합센터’는 광주 남구 노대동(737-2)에 6층(연면적 4,402㎡) 규모로 신축되는 지원시설로, 광주 진월지구 중심에 위치한다.

센터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임주자

지원 △주거상담 서비스 △주거급여 실태조사 △임대주택 자산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광주전남본부는 주거복지 현장 거점을 확대하고,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에 처음으로 ‘주거지원종합센터’를 신축한다.

주거지원종합센터 자체사옥이 확보되면 1층에 위치할 ‘마이홈센터’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심도 있는 개인별 맞춤상담을 진행하고 사회적기업·NGO 등 유관기관을 유치해 주거지원과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곽지혜 기자

광주은행, 총선 앞두고 ‘당선지원통장’ 출시

광주은행은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 지원을 위해 ‘당선지원통장’을 선거 전일 까지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며,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 후 1개월인 2024년 5월10일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

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창구 송금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 등이 있다.

광주은행 김두봉 영업추진부장은 “‘당선지원통장’ 판매를 통해 선거비용의 원활한 관리와 금융비용 절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에 동참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물가 걱정없는 연말 보내세요”… 유통업계 할인전 ‘풍성’

이마트 ‘홈파티 먹거리’ 할인 홈플러스 ‘반값세일’ 등 마련

지역 유통업계가 소비자들의 물가 걱정없는 연말을 위해 대규모 할인전을 연다.

호남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11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3.0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5%, 전남지역은 113.47(2020년=100)로 3.4% 각각 올랐다. 특히 신선식품류는 전년 동월 대비 광주 9.9%, 전남 12.6%로 급등했다.

이에 연말연시 홈파티·모임을 가지는 소비자들을 위해 지역 대형마트들은 식품, 주류 등 다양한 제품군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먼저 이마트는 15일부터 21일까지 홈파티를 위한 키친텔리 신상품과 케이크 등을 선보이고, 파티 메뉴로 제격인 HMR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키친텔리 코너에서는 연말 시즌에만 볼 수 있는 ‘홈파티 플레이트’ 기획 상품을 선보인다. 바베큐팝핀, 숯불양념 닭다리, 훈제 삼겹살, 치킨킹, 새우튀김, 빵과 디핑소스 등으로 구성됐으며 2만원대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플레이트 메인 메뉴 ‘바베큐팝핀’은 단독 상품으로도 판매하며, 일주일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홈플러스가 크리스마스 주간을 앞두고 ‘홈플러스대란’ 3주차 행사를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홈플러스 제공

이마트는 고물가 속 1만원 미만 제품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한국인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스파이시 맥앤치즈’, ‘어니언 치즈버거 피자’는 15일부터 딱 일주일만 판매한다.

크리스마스 등 연말 홈파티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 와인도 1만원~2만원대에 제공한다.

홈플러스도 크리스마스 주간을 앞두고 홈파티 분위기를 더할 육류, 델리 같은 먹거리와 선물하기 좋은 상품들을 총망라한 ‘홈플러스대란’을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육류, 수산, 과일 등 신선식품과 델리 신상품 등을 할인해 선보인다.

먼저 한우와 딸기 등 다양한 신선식품은 행사 카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6~17일 이틀간 ‘농협안심한우 전품목(100g)’, ‘새벽딸기’를, 이날부터 나흘 동안은 ‘꿀고구마(2kg)’, ‘애호박’을 9대 카드 결제 시 반값에 구입할 수 있다.

홈플러스 베이커리 브랜드 ‘몽블랑제’에서는 ‘딸기 마스카포네 생크림빵’과 ‘딸기 소보로 데니쉬’를 3000원대에 판매한다. ‘딸기 스케어 케이크’는 7000원대에 선보인다.

박소영 기자

재테크 칼럼

주식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의 하나가 세력이다. 그래프 등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세력의 의도를 알면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각 주식시장에 입문한 초보 투자자도 알고 있다.

세력은 외국인, 기관, 슈퍼 개미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우선 외국계 펀드들은 수십조에서 수백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며 환차익과 주가 상승을 동시 목표로 움직인다. 그들은 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로 대형주를 투자의 대상으

로 삼고, 현물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의 투자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통제하려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등 연금계, 투신, 보험,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들도 외국인 못지않거나 더 큰 자금을 운용하며 세력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세력이기 때문에 중 대형주가 주 투자 대상이고 선물과 현물 모두에 투자한

다. 현물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한두 종목만 선택해서 집중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개의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포트에 투자한다. 안전성 때문이다.

기관, 외국인 등 거대 자금을 운용하는 세력들은 자금의 규모 때문에 시총이 적은 소형주를 투자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의도적으로 속칭 ‘그림’(그래프 조작)을 그려서 다른 투자자를 속인다가거나 하는 경우도 없다고 보면 맞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투자종목과 투자액은 매일 발표되기 때문에 관심만 갖는다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 세력이라고 할만하다.

문제는 제3의 세력인 슈퍼개미들과 금융계 출신들이 만든 사설 펀드들인데 이들은 수천억 자산을 운용하면서 주로 시총이 몇 백억에서 몇 천억 단위인 중소형주를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다. 조작이 쉽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

별적으로 ‘작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연합, 또는 회사의 오너 등 관계자와 결탁해서 작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흔히 개인투자자들은 작전주라면 큰돈을 버는 줄로 착각하고 무작정 투자 대열에 뛰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런 불나방식 투자야말로 패가망신하는 확률이 매우 높다. 작전세력 스스로도 성공할 확률이 20~30%도 안된다고 한다.

작전은 비밀이 생명인데 내 귀까지 들렸다는 것은 작전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들 세력주는 쳐다보지 않는 것이 주식투자 기본이다.